

# 대상 임창욱 명예회장 경영일선 복귀

## 8월1일 출범 대상홀딩스 공동대표로 ... 책임경영체제 강화위한 조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8년 만에 지주회사 대상홀딩스의 공동 대표를 맡아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대상그룹은 8월1일 출범한 대상그룹의 지주회사 대상홀딩스의 대표로 임창욱 명예회장과 김상환 전 대상 건 강사업본부장을 선임했다.

임창욱 명예회장은 1997년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며 그동안 비상근 등기임원 직만 유지하며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왔다.

2001년에는 보유지분의 대부분을 두 딸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서울 방학동 공장 이전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경영 일선에 복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 지배구조가 변경되면서 지주회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주주인 임창욱 명예회장이 대표를 맡게 됐다는 분석과 함께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아직 50대인 임창욱 회장이 계속 2선에 물러나 있을 수 없어 지주회사 설립을 계기로 경영복귀를 추진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대상측은 “임창욱 명예회장이 대표이사에 등재된 것은 대주주로서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일 뿐 경영복귀는 아니며, 실질적인 경영은 복수대표인 김상환 대표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8/04>